

화끈한 '엘로 더비' 광주가 웃었다



Ki '원샷 원킬'

후반 33분 교체 등장 시즌 8호골

단 한번 슈팅 골 연결... 평점 7.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이 시즌 8호골을 터뜨렸다.

기성용은 2일(현지시간) 영국 웨일스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1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스토크시티와의 35라운드 홈 경기에서 8호골을 성공시켰다.

지난달 25일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26분 교체 투입된 기성용은 이날에도 1-0으로 앞선 후반 33분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성용은 경기가 거의 끝나가던 후반 추가 시간 셀비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인근에서 오른발 인사이드로 팀의 두 번째 골이자, 자신의 8호골을 만들어냈다.

기성용의 이번 골은 지난 5일 헐시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시즌 7호 골을 넣은 데 이어 27일 만이다.

이로써 기성용은 자신이 보유한 아시아 출신 프리미어리그 최다 골도 8골로 늘렸다.

경기가 끝난 뒤 축구 통계사이트인 후스코어닷컴은 16분 가량만을 펼친 기성용에게 팀내 중간 수준인 7.19점의 평점을 줬다.

2골을 어시스트한 셀비가 8.42점을 얻어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 페르난데스가 8.39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성용은 이날 단 한 차례의 슈팅을 득점으로 만드는 '원샷 원킬' 능력을 보여줬다. 불타치는 6차례밖에 되지 않았지만, 패스 성공률은 100%였다. 스완지는 이날 승리로 지난 25일 뉴캐슬을 상대로 3-2 역전승을 거두며 승점 50을 기록해 종전 팀 최다 승점(47)을 경신한 데 이어 팀 최다 승점을 53로 늘렸다. /연합뉴스



김영빈·파비오·임선영 연속골

광주 홈경기 전담에 3-2 승

6경기만의 승리... 순위 7위로 점프

광주 FC가 전남 드래곤즈와의 '엘로 더비'에서 돌풍을 재접했다.

광주 FC가 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K리그 클래식 9라운드 경기에서 3-2로 이기며 6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다. 목포에 임시 거처를 꾸렸던 광주가 돌아온 안방에서 첫 승을 기록하면서 전남과의 엘로 더비 6경기 연속 무패(4승3무)행진도 이어갔다.

전반부터 광주가 공격적으로 상대 진영을 치고 나가면서 선제 공격에 나섰다. 무승의 4월, 아찔한 실수를 하며 고개를 숙였던 김영빈과 파비오

가 만회하는 골을 터트리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수비수 김영빈이 전반 14분 선제골의 주인공이 됐다. 코너킥 찬스에서 이종민이 왼쪽에서 띄운 공을 문전에 있던 김영빈이 머리로 터치하면서 전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전북전에서 머리로 공을 처리하다 실수를 하며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던 김영빈이 이번에는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내며 활짝 웃었다.

성남전 페널티킥 실축에 울었던 파비오도 서울과의 경기에 이어 두 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

다. 송승민과의 콤비 플레이가 빛났다. 전반 18분 전남 오른쪽 진영으로 치고 오르던 파비오가 중앙에 있던 송승민에게 패스 한 뒤 다시 두 명의 수비수를 따돌리고 공을 넘겨받았다. 이어 오른쪽으로 슈팅을 날리면서 두 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다.

분위기가 한참 끓어 오르던 전반 중반 아찔한 실수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광주 수문장 권정혁이 공을 잡았다가 전남 김영욱에게 찬금 같은 득점 기회가 만들어졌다. 김영욱은 차분하게 광주의 빈 골대로 공을 집어넣으면서 추격에 나섰다. 이후 전남이 공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흐름을 주도했다. 후반 초반에도 전남의 발끝이 더 매서웠다.

큰 실수를 하며 고개를 숙였던 골키퍼 권정혁이 후반 13분 슈트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다시 광주 쪽으로 흐름을 돌렸다. 권정혁이 전남 안우의 강한 슈팅을 쳐내며 실점 위기를 넘겼고, 남기일 감독이 교체 카드를 사용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15분 조용태를 빼고 신에 주현우를 넣으며 파위를 더한 남 감독은 17분에는 발끝이 무뎠던 파비오를 빼고 오도현을 넣으면서 수비와 공격 루트 강화를 동시에 노렸다. 그리고 22분 주장 임선영의 골과 함께 분위기 전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골포스트 왼쪽에서 수비수 두 명을 앞에 두고 있던 임선영이 슬쩍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며 상대 수비수의 타이밍을 뺏은 뒤 그대로 오른발로 슈팅을 날렸다. 임선영의 발을 떠난 공은 골대 왼쪽 구석으로 빨려들어가면서 3-1이 됐다.

광주는 후반 종료 직전 전남 전현철에게 골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3-2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6경기 만에 승자가 됐다.

승부에 추를 기울이는 썩어골을 터트린 임선영은 "공을 넣고 나서 속이 다 시원했다. 광주에서 와서 다시 경기를 하니 기분이 정말 좋다"며 홈 관중 앞에서의 첫 승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졸전으로 끝난 '세기의 대결'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가든 아레나에서 펼쳐진 '세기의 복싱 대결'에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왼쪽)가 매니 파키아오의 얼굴에 펀치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메이웨더, 파키아오에 싱거운 판정승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방패가 승리했다.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38·미국)가 8체급 석권의 '전설' 매니 파키아오(37·필리핀)마저 꺾고 무패 신화를 이어갔다.

메이웨더는 3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세계복싱평의회(WBC)·세계복싱기구(WBO)·세계복싱협회(WBA) 웰터급(66.7kg) 통합 타이틀전에서 파키아오를 12라운드 심판 전원일치 판정으로 꺾었다.

이로써 메이웨더는 48전 전승(26KO)을 기록

하며 '무패 복서'의 타이틀을 지켰다. 파키아오의 전적은 57승(38KO) 2무 6패가 됐다.

'인파이터' 파키아오가 시종일관 폼을 파고들며 주먹을 던졌으나 최강의 '아웃복서' 메이웨더는 무수한 펀치를 대부분 피했다.

메이웨더는 1라운드에 예상과는 달리 다소 공격적인 자세를 보여 관중을 들뜨게 했으나 이게 전부였다. 메이웨더는 적시 적소에 차곡차곡 주먹을 쏘는 영리한 포인트 운영을 이어갔다.

이번 경기가 화끈한 장면 없이 끝나면서 두 선수의 재대결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우즈베크 월드컵, 실수 없는 경기 주력"

손연재, 러시아로 출국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가 "몸상태가 많이 괜찮아져 우즈베키스탄 월드컵을 준비하면 될 것 같다"면서 "큰 실수는 당연히 없어야 하고 작은 디테일을 깔끔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연재는 3일 전지훈련과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 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러시아 모스크바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프로그램 자체의 숙련도보다는 진실수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당시 1위를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낸 천송이(세종고3) 등 후배선수들에게 "제가 이제 선수생활이 얼마 안 남았으니 후배들도 열심히 해서 바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손연재는 러시아에서 기량을 가다듬은 후 22~2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월드컵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10~13일 열리는 제전 리듬체조 아시아선수권 대회, 7월 11~13일 열리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에 대표로 참가한다.

손연재는 지난달 초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월드컵 경기 도중 발목을 다쳤고 그 여파로 리듬체조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불참한



바 있다. 당시 대한체조협회는 국제대회 입상가능성 등을 고려, 추천방식으로 손연재를 국가대표로 선발해 국제대회 출전권을 부여했다. /연합뉴스

장익제·신지에

日골프 남녀 동반우승

장익제(42)와 신지에(27·스리브드)가 일본 남녀 프로골프 대회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장익제는 3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골프클럽 외고 코스(파70, 6545야드)에서 열린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 더 크라운스(총상금 1억2000만엔)에서 최종합계 10언더파 270타로 우승했다.

6언더파 274타로 공동 2위인 아마시타 가즈히로, 곤도 도모히로, 다니하라 히데토(이상 일본)를 4타 차로 낙하한 장익제는 JGTO 통산 3승을 기록하게 됐다.

우승 상금 2400만엔(약 2억1000만원)을 받은 장익제는 시즌 상금 2662만6000엔을 기록해 상금 1위에 올랐다.

신지에에는 일본 지바현 이치하라시에서 열린 일본 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사이버 에이전트 레이디스 토너먼트(총상금 7000만엔)에서 최종합계 8언더파 208타로 정상에 올랐다. 기구치 에리카(일본)를 1타 차로 제친 신지에에는 우승 상금 1260만엔(약 1억1000만원)을 받았다. /연합뉴스